

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.

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, 다른 한 번은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다.

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죽고, 다른 한 번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이다.